

몽고지지 연구 서설

형 기 주*

Introduction to a Study on Geography of Mongolia

Kie-Joo Hyong*

1. 머리말

몽고항공(MIAT)으로 서울에서 울란바투르까지 불과 4시간의 거리에 있는 지척의 이웃, 몽고가 우리에게도 오랜동안 장막에 가려있다가 최근에야 문을 열었다. 한반도의 문화가 북방에서 유입한 것이 아니고 자생한 것이라는 사학계의 최근 주장도 있으나 몽골과 한국인은 똑같은 우랄·알타이어 계통에 속하고 민간신앙을 비롯한 각종 생활양식에 유사한 점이 많아서 이를 연구하는 자들에게는 더 없는 연구 현장으로 생각된다.

몽고 뿐 아니라 몽고인들이 세렌게강을 따라 떠나들었던 바이칼 주변의 「부리야트」까지도 문화의 흐름과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관심은 자못 크다. 더구나 이러한 곳은 아직 자연이나 주민생활에 오염이 적고 원형이 잘 보존되고 있기에 연구 개발의 처녀지나 진배 없다.

몽고에 관한 언어·역사·민속학 분야는 옛날부터 연구의 축적이 많았으나 지리학 분야는 러시아 학자들의 그것을 제외하면 그리 많지 않고, 해방전 일본 사람들의 연구는 대체로 내몽고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차제에 몽고를 처음 답사하는 지리학도를 위하여 몽고 지지연구의 기초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표제를 「몽고지지 연구 서설」로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95년 7월14일 부터 약 10일간 현지 답사에서 얻은 자료

와 기연구된 각종 문헌을 정리하여 몽고지지의 극히 한정된 내용만을 서술한 것이다.

서술의 편의상 처음에 몽고의 자연환경을 논하고, 그 다음에 몽고의 인구, 자원생산 및 생활양식에 관해서 논할 것이다. 본래 유목민이란 바람과 같아서 바람이 스쳐간 흔적은 있으되 스스로 기록을 남긴 것이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1차 자료의 분석이 아니고, 기발표된 각종 문헌의 내용을 현지 관찰과 면담을 통해서 검증을 시도한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가 양국간의 문화적·경제적 이해 증진에 일조할 수 있다면 더 큰 의미가 부여될 것이다.

2. 몽고의 자연환경

1) 광대한 국토

대체로 아시아의 중앙부를 점하고 있는 몽고는 그 면적이 156만km²로 한반도의 약 7배에 이른다. 수도 울란바투르에서 이 나라의 서쪽끝에 해당하는 알타이 산맥의 타반·보그다 산(4374m)까지의 거리는 1900km에 이르고, 동쪽 끝에 해당하는 케헬렌강까지의 거리가 1200km에 이르며, 울란바투르에서 북쪽의 러시아 국경까지가 약 300km, 남쪽의 중국 국경까지가 약 800km에 이른다.

몽고의 국토 범위를 경위도상에서 보면, 동경 90°에서 120°사이, 북위 40°에서 55°사이로서 아시

* 동국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Dongguk University)

아의 큰 줄기 알타이 산맥에서 싱안링 산맥까지의 넓은 사막과 초원을 거의 포괄하니 실로 광막하다. 바다의 출구가 없이 구소련과의 국경만 약 3485 km, 남쪽으로 접한 중국과의 국경은 무려 4673km에 이른다. 전체적으로 높은 산악과 고원으로 되어 있는 이 나라의 평균고도는 약 1580m, 가장 낮은 곳이라 하더라도 해발 500m가 넘으니 마치 높은 탁상위에 험준한 산줄기를 올려놓은 모습이다.

대체로 서쪽과 북쪽으로 갈수록 높은 산이 많고 동쪽과 남쪽으로 갈수록 평탄한 탁상지가 전개되는데, 큰 줄기의 산맥은 대체로 서서북-동동남 방향으로 뻗어 있다. 중국과의 사이에 몽골·알타이 산맥이 있고, 러시아와의 사이에 코브스콜 산맥이 있으며, 이 나라의 중앙을 향가이 산맥이 뻗어 있다. 향가이 산맥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졌다가 이 나라의 수도 울란바투르 부근에서 점차 높아지면서 켄타이 산맥이 되어 동북쪽으로 이어진다.

주요 하천은 산맥과 산맥사이에 흐르고, 특히 향가이 산맥과 코브스콜 산맥사이를 흐르는 세렌게강은 러시아의 브리야트를 거쳐 바이칼로 유입하는 이 나라 젓줄이나 진배없다. 이 강을 통해서 몽고족들이 바이칼호 주변과 동시베리아를 넘나들었고, 몽고의 유일한 농경지가 이 강의 중하류에 전개되기 때문이다.

향가이 산맥은 대체로 이 나라를 남북으로 나누는 표지가 되는데 여러 갈래의 작은 산맥으로 나뉘어 있고 사슴, 사향, 곰, 늑대, 여우, 산양 등 야생동물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다.

2) 건조하고 대륙적인 기후

몽고는 바다와 멀리 격리되어 있고 해발고도가 높은 위에 위도상으로 보아도 40°~55° 사이에 펼쳐 있기 때문에 매우 건조하고 기온의 일교차, 연교차가 심한 대륙성 기후의 표본이다. 울란바투르를 기준으로 볼때, 6월 평균기온이 17°C, 1월 평균기온이 영하 28°C나 되므로 그 교차는 약 45°C에 이른다. 그러나 6월의 최고기온은 34°C, 1월의 그것은 영하 48°C나 되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 기온의 최대 교차는 실로 80°C가 넘는 셈이다. 이같은 대륙성 기후의 특징은 고비사막에서 더욱 뚜렷하여 한더위에는 40°C이상, 한추위에는 영하 50~60

°C를 기록하는 경우가 흔하다.

몽고 전역에 걸친 연평균 강수량은 약 200~220 mm로 알려져 있으나 남쪽의 고비사막 일부에서는 60~100mm에 지나지 않고, 고비에서 북상할수록 많아져서 향가이 산맥이나 러·몽 국경의 코브스콜 산맥에서는 연간 400~500mm에 이른다. 극도의 건조기는 5~6월이고, 눈은 11월에서 3월 사이에 내리는데, 극도로 건조하거나 겨울에 전혀 눈이 내리지 않을 경우에 사육하는 동물에 큰 재난이 따른다.

연강수량이 적다고는 하지만 건조지의 강우형식은 일시에 쏟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따금 홍수성을 띠기도 한다. 일조시수(日照時數)는 연간 300일이나 되고, 문명국가와 격리된 고원에 위치하여 있을 뿐 아니라 이나라의 산업 특성상 오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공기는 아주 맑다. 게다가 외래하천이 없이 이곳 대자연만을 흐르는 강줄기가 3800,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않은 호수만도 4000개에 이르기니 청명한 날씨, 청명한 물의 몽고이다. 여기에 7~8월의 초원에 야생꽃이 만발하면 몽고는 문명세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화려한 천지로 변한다. 옛말에 '胡地無花草'란 말이 있었으나 이와 유사한 생각, 즉 '몽고는 거친 자연이다'는 일상적인 사고는 몽고의 계절과 지방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잘못된 선입견이다.

3) 다섯개 구분의 자연경관

몽고는 산맥의 배열이 대체로 위도와 같은 방향의 동서배열이기 때문에 자연경관도 산맥을 따라 배열된다. 흔히 역사적으로는 고비사막을 경계로 막북(漠北)과 막남(漠南)지방을 구분해 왔다. 막북은 케헬렌강, 세렌게강 유역을 포함하는 초원과 삼림·초원지대로서 외몽고란 바로 이를 두고 쓰는 이름이다. 이들 하천 유역은 예로부터 흉노·돌궐로 일컫던 몽고족의 활동무대로서 칸 제국시대의 수도 카라코룸을 비롯하여 지금의 수도 울란바투르 등 주요 도시가 이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서 막남은 고비사막이남의 초원지대에서 중국의 만리장성까지의 범위를 가르킨다. 이곳을 흔히 내몽고라 하며, 지금은 중국의 내몽고자치구에 속한다.

한편, 몽고의 중앙을 서서북-동동남으로 달리는 향가이 산맥을 경계로 몽고를 북반과 남반으로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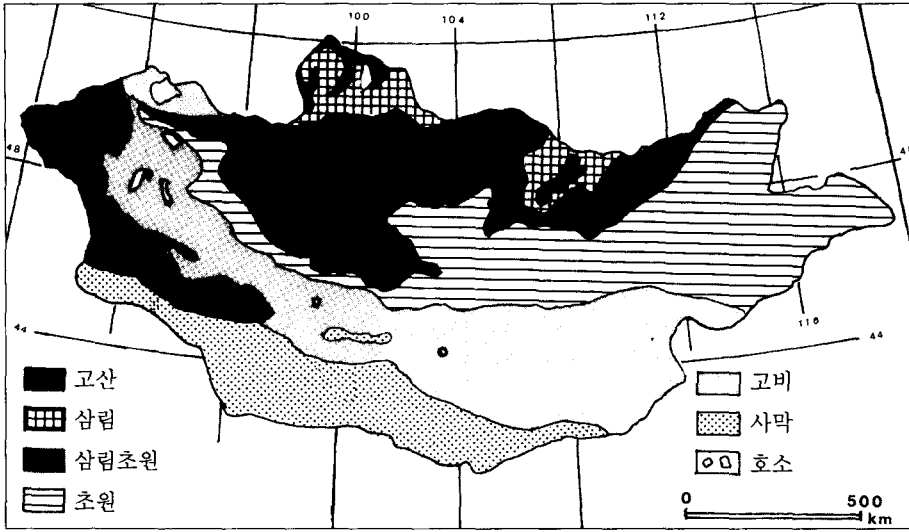


그림 1. 몽골의 자연 경관 구분

별할 수도 있다. 이때 북반은 거의 초원과 삼림·초원으로서 남반의 고비사막에 비해서 한결 생산성이 높고 인구·도시·산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하여 있다.

자연 식생을 지표로 해서 몽고 국토를 다섯가지 지대로 나누어 보면 몽고의 지리적 성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제일 남쪽 부분이 순사막과 고비사막, 그 북쪽이 스텝, 그리고 이에 이어서 삼림·초원(항가이)이 차례로 배열되어 있고, 몽고의 서북쪽은 고산과 만년설로 특징지워지기 때문이다.

순사막과 고비는 대체로 북위 45°이남에 해당하며, 이나라 총면적의 약 1/5을 점한다, 이중에 완전 불모의 사막이 점재하여 있는데, 이들 순사막과 고비사막은 구별된다. 왜냐하면 고비(gobi)란 몽고말로 '사막성 초원', 즉 거친 초원을 두고 이르는 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모래에 자갈이 많이 섞여 있고, 거칠지만 사막성 식물이 듽성듬성 자라기에 조방적 유목이 가능하다.

고비의 북쪽으로 길게 동서의 띠를 이루는 부분이 이른바 스텝(steppe)으로서 동경 100°의 동쪽으로는 점차 넓어지지만 그 서쪽으로는 고산과 고비가 개재하여 있기 때문에 좁게 나타난다. 이곳이 몽고 사람들의 풍요한 생활 터전이다. 옛날에는 풀을 따라 동서, 남북으로 장거리 이동을 했지만 몽

고 사회주의 체제로 재편되면서 집단화·정착화에 성공하고 있다. 유목이나 정착 목축에서 사냥하는 동물은 고비에서 낙타·산양이 주종이고 스텝에서는 면양이나 소·말이 주종을 이룬다.

스텝과 연결된 몽고 북부의 넓은 땅은 몽고말로 '항가이'라 일컫는 삼림·초원인데 대체로 울란바투르 이북에 해당된다. 여러갈래로 갈라진 항가이 산맥과 그 사이를 흐르는 세렌게강의 본류 및 지류 일대가 이에 포함된다. 삼림은 주로 낙엽송, 시베리아 전나무, 자작나무 등 자연림이 무성하고 숲과 숲사이에 듽성듬성 몽고 주민의 주거지인 백색 겔(ger)과 함께 골프장을 방불케하는 아름다운 목장이 전개된다. 이곳 숲이 야생동물의 낙원으로서 여우, 흑담비, 타르바가(물모트의 일종)는 모피가 공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또한 세렌게, 오르홍강 유역은 정착 목축업과 함께 곡물 및 원예농업도 행하여 지는 몽고 제 1의 풍요로운 농토이다.

4) 고비사막의 자연경관

고비(gobi)란 말이 중국문헌에 처음 쓰인 것은 구당서(舊唐書)에 '과벽(戈壁)'이란 말로 기록되면서 부터이다. 몽고고원의 동반부 남쪽을 넓게 점하면서 내·외 몽고에 걸쳐 있는 고비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막성 초원', 즉 거친 초원이

란 뜻이다. 몽고의 넓은 초원을 자연적 구조에 따라 구별하자면 북부의 삼림성 스텝(항가이), 동남부의 사막성 스텝(고비)으로 양분한다.

동쪽은 싱안링 산맥, 서쪽은 몽골·알타이 산맥, 북쪽은 항가이 산맥, 남쪽은 인산(陰山)산맥으로 에워싸여 있는 동서거리 약 1500km, 남북은 약 1000km에 이르는 해발 약 1300m의 산간고원이 바로 고비사막이다. 이는 서쪽으로 갈수록 높고, 동쪽으로는 갈수록 낮으며, 표면 퇴적물은 주변의 산지에서 운반된 모래와 자갈이 주종을 이룬다. 바다와 차단되어 매우 건조하고 이에 잘 견디는 낙타풀이 고비의 보편적 식생으로 자라고 있다.

주변 산지에서 운반된 사력은 낮은 곳을 메워서 군데군데 구릉지대를 이루는데 이를 이곳 말로 '다르'라고 한다. 고비의 중앙부에 '아라산·다르', 동쪽에 '이렌·다르', 동북부에 '다이랴·다르'가 유명하고 이중에 중앙부의 그것은 작은 고비라 일컫는다. 높은 염분 함량의 점토와 사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경관은 황하를 건너 중국의 오르도스·스텝에 까지 연결되어 있다.

고비사막 전역은 원래 내해(內海)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에 고기암층(古期岩層)은 해성층으로 습곡·단층이 현저한 반면 백악기(白堊紀) 이후의 새로운 암층은 분명히 육성층으로서 지층이 수평층을 이룰 정도로 대요곡운동(大撓曲運動) 이외에 지각변동을 크게 받지 않았다. 원형이 잘 보존된 공룡과 공룡의 알이 다수 발견된 곳도 바로 이 지층이다. 대요곡운동(大撓曲運動)의 결과 낮은 곳은 융기하여 육지가 되고, 그 후에 풍화·침식작용에 의해서 사력이 퇴적하여 오늘의 고비를 형성하여 왔다.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의 기온교차가 극심한 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데, 특히 봄날씨는 심하게 급변하고 초여름에는 선풍때문에 풍진만장(風塵萬丈)의 경관을 이룬다. 향시 이곳은 편서풍이 탁월하기 때문에 사구(砂丘)는 동쪽을 향해서 만들어지고 이동한다. 기온이 상승하는 7~8월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말라있던 내륙 하천에 물이 흘러 사막주변의 함호로 유입된다.

고비사막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야생동물로는 설치류의 일종인 타르바카가 있고, 무리를 지어 서식하는 황양, 즉 노로(한국어 노루의 어원인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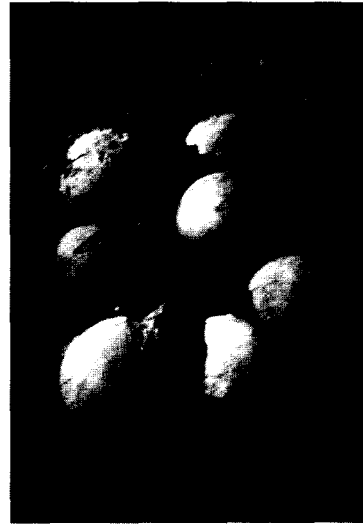


사진 1. 공룡알의 화석 (남부고비 박물관 소장)

가 유명하다.

3. 몽고의 주민과 생활양식

1) 몽고인·몽고언어

언어학적으로 몽고어를 읽고 몽고말을 하는 인구는 전세계에 약 700만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의 내·외몽고 주민의 주종을 이루는 '하르하'족을 비롯하여 부근의 '브리야트·몽골', 중국의 신강성에 사는 '토르구드', 러시아의 불가강 하류에 사는 '칼부크' 등이 이에 포함된다.

몽고고원의 오르홍강과 세렌게강 유역에 고대 유목민의 성산(聖山)으로 알려진 "우토우겐"산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 근처가 몽골의 오랜 활동무대이었던 것 같고 구당서(舊唐書)에는 이들을 '몽울(蒙兀)'이라 기록하고 있다.

몽골의 어원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학설이 알려져 있다. 몇가지 이설(異說)을 열거하면, ① 씨족이나 부족의 이름이라는 설, ② 몽고어의 "몽"은 대답한 사람, 또는 방만한 사람, 부유한 사람의 뜻과 관련된다는 설, ③ 몽고어의 mǎngke ghowl은 영원한 중심, 영원한 강이란 뜻과 관련된다는 설 등이 있다.

지금 몽골공화국의 인구는 약 220만명이고 이중에 44%가 16세 이하의 유·소년 인구, 약 30%가 35세 이상 인구이다. 평균수명은 남자가 60세, 여자가 62세로서 낮은 편이고,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5%로서 한국의 60년대 초와 비슷하다.이같이 인구성장율이 높은 것은 다산소사(多産少死)에서 야기된 것인데 개발도상국 전형인 “초기확장단계”의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몽고의 총가구수는 약 44만가구, 총인구수가 약 220만인 이므로 평균 가구원수는 5인이다. 생각보다 가구원수가 적은 것은 유목문화와 관련되는 것으로 몽골은 성인이 되면 막내 아들만 남고 적당한 유목지를 찾아 일찌기 분가하는 관습이 있는 위에 가옥의 이동성이 쉽게 분가를 가능케하기 때문이다.

9세 이상의 인구중 97%가 식자율이므로 문맹은 거의 일소되고 있다. 실제로 취학률은 95%가 넘는 위에 인구의 대다수는 일반 교육기관에서 8년간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국민교육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 물론, 여기에는 라마교의 사찰교육도 포함된다.

몽골 총 인구중 약 60%가 도시에 거주하며, 수도 울란바투르에만 약 65만(약 30%)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그것은 몽고에도 자유화, 시장화 바람이 불어 닥치고 유목의 정착화 내지 기피현상이 점차 만연되기 때문이다. 농목업 인구의 서비스 인구화 현상은 곧 인구의 이촌향도(離村向都)를 의미한다.

몽고말을 사용하는 인구가 세계적으로 약 700만에 이른다고 하지만 몽고의 표준말에 해당하는 ‘하루하’ 말을 제외하면 방언이 많다. 그리고 몽고가 사회주의화된 이후 정통적인 몽고 문자를 쓰지 않고 러시아의 키릴 문자를 공용어로 써왔기 때문에 지금 젊은 층은 자기들의 고유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자가 많다.

몽고어는 한국어나 일본어와 같은 계통의 우랄·알타이어에 속하고 어순이 거의 같아서 배우기에 용이하다. 예를들어 13세기전후 「몽골비사」에 나오는 「푸른 이리의 탄생」에 관한 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징기스칸(황제) 노(의) 호자오르(근원은) 데 에레(위의) 덴게리(천신) 에찌에(으로 부터) 자이 야트(운명을 받아) 드레구센(태어난) 보르테(희백

색의) 지노(이리) 아지요(이었다) ...

어순이 우리말과 다름없고 동사의 변화도 어근(語根)에다가 조동사나 접미사를 붙여서 여러가지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 많다.

우리말은 같은 형용사에 여러가지 층과 구별이 있지만 몽고어에는 가축에 관한 어휘가 세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매우 당황한다.가축에 관한 한 나이·용도·모피의 색깔·고기·내장·동작·생태·우는 소리 등에 따라 상세하게 표현되기 때문이다. 마치 일본말에서 생선에 대한 표현이 세밀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몽골은 저들의 발자취를 전 세계에 남긴 자신들이 창조한 문자, 또는 외국문자를 빌어 몽고문자로 개량한 문자 등 서로 다른 문자를 많이 사용해 왔다. 지금 쓰이고 있는 몽골문자는 서기 1204년 징기스칸의 원정시에 위그르인 포로로 부터 전수받은 것이라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흔히 위그르식 몽골문자라고 일컫는다. 위그르문자와 몽골문자는 다같이 소구트문자를 기원으로 하는데 아랍문자도 같은 계통이다.

소구트문자는 오른쪽에서 외쪽으로 횡서인데 몽골문자는 표음문자로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종서이다. 몽골문자가 종서인 것은 한문의 영향이다.

몽골문자의 서체는 일반적으로 13~16세기의 전고전기와 17세기 이후의 고전기로 구별된다. 전고전기의 서체는 위그르문자의 서체와 흡사하고 서기 1224~1225년의 「징기스칸 비문」이 가장 오래된 자료로 알려져 있다. 지금의 서체는 활자체·필기체·초서체가 개발되어 있고, 이밖에 각지의 방언에 따라 여러 종류의 아류 서체가 쓰이고 있다.

2) 자원과 생업

총 토지면적의 80%가 목장이나 초지로 이용되고 있고, 9%가 삼림, 0.9%가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몽고에는 부존자원이 풍부하여 개발기술과 자본의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

사육되는 동물로는 말이 226만두, 소가 285만두, 낙타가 56만두, 돼지 19만두, 면양 1508만두, 산양 513만두, 젖소 20만두로서 모피를 비롯한 축산가공품은 이나라의 주요 수출품이 되어 있다. 농업은 주로 세렌게강 유역에서 맥류나 감자류를 재배하고 있으나 역시 이 나라는 농경보다는 목축업이

주요 생업이다.

지하자원으로는 금·은·구리·몰리브덴·철광·갈탄·유연탄·석유 등이 매장되어 있고, 특히 구리는 이나라 총 수출액의 30%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전략자원이다. 소·몽 합작회사 'Erdenet' 구리·몰리브덴 광산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가동하고 있었던 이나라 주요 기업이다. 이밖에 석탄은 매장량이나 그 질의 우수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위낙 내륙의 오지에 위치하여 있고 철도망이 발달하지 못하여 연생산량은 유연탄 69만톤, 갈탄 720만톤에 불과하다. 이중에 상당량은 화력발전(100%가 화력)에 이용되고 일부가 수출된다.

총 경제활동 인구중에 65만명이 생산직에 종사하고 약 23만명이 사무직이나 지적활동에 관계되는데, 생산직중에 약 32만명이 농목업 종사자에 속한다.

이 나라가 전통적 유목생활로 부터 근대적 개혁을 착수하게 된 것은 라마교 중심의 Bogd-Gegen(활불) 군주제가 몰락하고 독립을 쟁취한 1921년 이후이다. 옛날의 한(汗) 제국이 분열·멸망하자 몽고는 오랜 세월을 청조(淸朝) 지배하에 있었는데 1911년 신해혁명을 계기로 외몽고와 내몽고가 갈라

져 외몽고는 사회주의 정권(1924)을 지향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몽고는 봉건적 권력과 전통 경제적 기반을 타파하고 1948년 부터 사회주의 5개년계획에 착수하였다. 3차에 걸친 계획의 실시는 무엇보다도 ① 유목의 정착화, ② 문자개혁에 의한 문맹 퇴치, ③ 몽고의 자원개발에 중점이 주어졌다.

소련·동구권의 몰락으로 몽고는 1990년 5월부터 외국투자법을 시행하게 되고, 1991년에 은행법의 시행과 함께 IMF에 가입하는 등 점차 시장경제로 이행하면서 자유세계에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와는 1990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나 상호간의 교역은 아직 미미한 단계에 있다. 장차 우리의 기술과 자본에 의한 철도·도로 건설, 지하수 개발, 관광지 개발, 지하자원 개발 등은 이 나라의 순박하고 성실한 노동력과 함께 매우 기대되는 부분이다.

3) 야생과의 공생(共生)

몽골은 누구나 다 유목민의 후예이고 지금도 상당수는 가축이나 야생동물과 공생하고 있다. 이들 만큼 자연을 잘 이용하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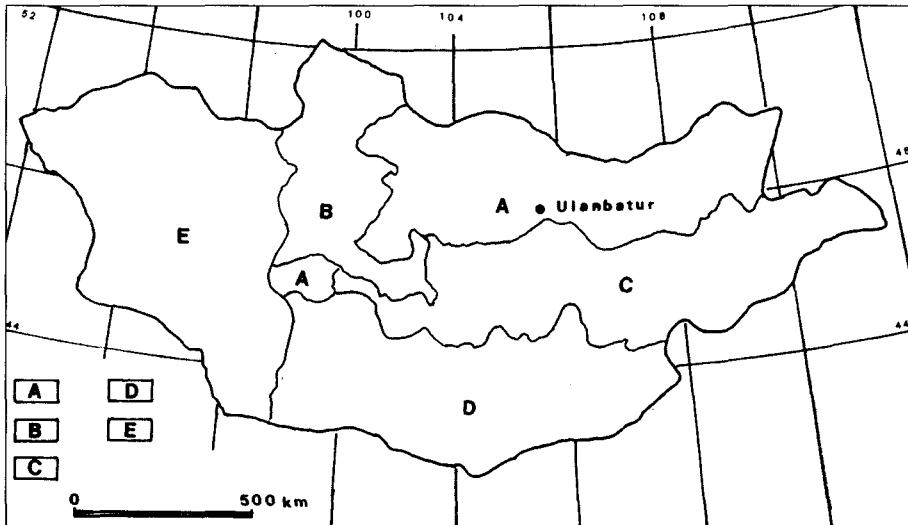


그림 2. 몽골의 경제지역

- | | |
|------------------------------------|--------------------|
| A. 고기소 젖소(Selenge, Bulgan Khentiy) | D. 낙타, 염소, 양(Gobi) |
| B. 소·양(Khangay Khövsgol) | E. 목우 (대호연안) |
| C. 소·양(Dornod Pasture) | |

하게 사는 민족은 드물다. 이들은 모두가 동물학자나 다름없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가축을 사양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의식주를 해결할 것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비도시 인구의 50%이상은 아직도 겔(gel)이라는 천막집에 거주하는데 이는 여름의 고온과 겨울의 혹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편리한 거주양식이다. 겔은 자작나무 가지를 열개로 하여 그 위에 양의 모피로 만든 흰색 천막을 덮는 간단한 주거형태인데, 무게는 약 300kg쯤 되고, 3~4인이 1~2시간 걸려서 쉽게 건조·해체가 가능하다. 계절마다 이동이 불가피한 생활에서는 매우 편리하고, 특히 겨울의 혹한에서는 새끼양을 보호할 수 있는 가축과의 공생의 터이기도 하다.

겔은 항상 그 출입구를 남향으로 하여 건조하고 가장 안쪽(북편)이 집안의 존장이 앉는 자리로서 호이므로(上座)라고 한다. 손님은 존장의 오른쪽에, 부인의 자리와 취사장은 존장의 왼쪽에 배열되는데, 이는 마치 북극성을 중심으로 태양의 운행과 같은 모습을 상징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음택(陰宅)이나 양택(陽宅) 풍수에서 주산을 북쪽으로 등

지고 혈(穴)이 있으며, 그 좌우를 청룡, 백호가 에워싸는 형국은 바로 이러한 몽골문화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장례는 토장, 풍장, 화장의 세가지가 혼용되고 있다. 몽고의 가장 오랜 장례 형식은 역시 토장으로 땅에 묻는 것인데 칭기스칸도 자기가 태어난 고향, 케헬렌강 상류에 묻혔다고 한다. 몽골말로 '황금의 요람'이란 곧 태어난 곳에 묻힌다는 뜻이다.

일반인들 가운데는 한때 풍장(風葬)이 널리 행하여 졌는데 이것은 티베트를 비롯한 이동식 생활을 하는 민족에게 널리 행하여 졌던 장법이다. 사체를 들판이나 산지의 남사면에 유기하여 들개나 독수리의 밥이 되면 성불(成佛)한다는 습속과 관련되지만 혁명이후에는 거의 사라졌다.

몽고는 라마교가 가장 보편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라마교 의식에 따라 사찰의 '조르하이티'라 일컫는 점사(占師)의 집전으로 화장, 토장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활불이나 고승은 미이라를 만들어 안치한다.

장례 7일제, 49일제를 지내고 제사는 서거한 그 날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한식날에 지내는데, 이를 몽골말로 '한시'라고 한다.

상속은 촌장회의에서 결정하며, 형제들은 각자 좋은 유목지를 찾아 흩어졌다가 겨울에 다시 모인다. 가족의 모임이나 손님을 접대할때 흔히 내놓는 음료는 쓰디짜이(乳茶)와 아이락(馬乳酒)이 있다. 전자는 우유나 말젖 또는 산양젖에 전차(磚茶)를 섞어 데운 것인데, 전차란 홍차를 벽돌 덩어리처럼 압축한 것이다. 아이락은 말젖을 발효한 낮은 도수의 술인데 마치 우리의 신맛나는 막걸리와 같다. 아이락을 증류하여 높은 도수의 술로 만든것이 몽골의 보편적인 알콜 '알르히'이다.

양고기나 유제품이 이들의 주식인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특이한 것은 음식물을 비롯하여 모든 생활의 구석구석에 백색(白色)에 관한 외경이 뿌리 깊은 것 같다.

우선 쓰디짜이(乳茶)와 아이락(馬乳酒)을 비롯해서 지붕위에 말리고 있는 백색 치즈 '아로트', 크림의 일종인 '우름', 요구르트의 일종인 '다라그'가 모두 백색일 뿐 아니라 녹색의 초원에 군데 군데 흩어져 있는 겔 또한 백색이다. 게다가 악귀



사진 2. 몽고인과 겔
(교통수단으로 오토바이가 보급되고 있다)

를 쫓을 때 흰 우유를 뿌리고, 멀리 떠나는 사람의 장도를 빌 때도 우유를 뿌린다. 하늘의 상징이 백색이고, 정월달을 백색의 달(白月)이라고 불렀으며, 제사용 희생양을 잡을 때 백색의 죽단을 깔고 잡는다. 이 모두가 저들의 자연에서 터득한 지혜로서 자연과의 공생을 뜻한다. 우리의 흰옷 입는 습관이 혹시 몽골의 자연관에서 유래한 것이 아닐지 연구해 볼 과제이다.

자연과의 공생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부분이 야생동물의 금렵지나 금렵기간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환경단체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랜 옛날부터 몽골은 야생동물과 공생하여야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지혜에서 온 것인데,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에도 원제(元帝) 쿠빌라이의 영토에서는 3월에서 10월까지가 금렵기로 기록되어 있다. 이때가 야생동물의 번식기이며, 이때는 위로는 황제로부터 아래로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일체 야생동물의 포획이 금지된다. 지금도 몽고에는 '다르바강(수렵 허용기간)'이 8월 15일 부터 2개월간으로 정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몽골은 어린 동물이나 날짐승의 등지 등에는 손을 대지 않는 금기가 있다.

'수렵민은 동물을 잡아서 사는 사람이고, 유목민은 가축을 살려서 사는 사람이다'는 말이 있는데, 이때 동물을 잡는 방법은 인간의 룰에 의하지 않고 자연의 섭리에 의존한다. 자연의 생태를 해치지 않고 살생을 하는 지혜가 곧 몽골의 생활방식인데 이는 불교의 영향이 크다. 필요한 만큼의 희생이 불가피할 때 불교에서는 이를 '활명(活命)의 살생'이라 한다. 즉, 살생에 의해서 사람들의 생명과 생명이 유지되고 다른 동물의 생명에도 도움이 될 때를 말한다. 몽골은 우유로 더럽혀진 그릇을 절대 흐르는 개울물에 씻지 않고 반드시 물을 떠내어 씻는다. 이것은 요즘의 자연보호 운동과 관계없이 옛부터 자연과 인간이 일체라는 사고에서 유래된 것으로 자연의 오염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공생의 식이 뿌리깊게 박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 불교와 민간신앙

몽고의 자연과 주민들을 정신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저들의 오랜 민간신앙과 라마교의 힘이다. 몽고인들에게 승려는 관혼상제에 빼놓을 수 없는 존

재이고, 몽고 도처에서 볼 수 있는 '오보(무당목)'는 민간의 일상생활을 보호해 주는 자연속의 만신(萬神)이다.

징기스칸이 몽고고원을 통일하기 이전부터 몽고에는 흉노·선비 등으로 불리었던 유목민이 살았고, 기원 4~5세기경에는 남쪽의 중국 본토를 침입하여 몇개의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한민족들은 이를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이라 하여 야만시 했다. 5세기에 북량(北凉)의 흉노가 미륵보살에 관한 한역경전(漢譯經典)을 남긴 바 있고, 선비족인 북위(北魏)는 그 유명한 원강석굴(雲崗石窟)을 남겼다. 이들이 모두 현 몽골의 선조라고 본다면 몽고에는 오래전부터 불교가 들어간 셈이다. 징기스칸 자신이 불교신자이었던지 여부는 알 수 없고 몽골제국 제 2대 황제때에 티베트의 4대 총파중 하나인 '사키아파' 불교가 몽고에 도입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때가 서기 1247년, 티베트가 몽고의 지배하에 들어간 것도 이때부터이다.

몽고 역사에서 한때는 총인구의 약 20%가 성직자로 구성된 때가 있었고, 전국에 700개 이상의 라마교 사찰이 보급된 때가 있었으나 사회주의 개혁 이후에 많이 줄었다. 몽고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쉽게 출가시키는 것을 보고 그것이 면세특권을 얻으려는 속셈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은 사찰이 몽고인들의 마음에 너무나 가까이 있고, 합장하며 관음보살을 외우는 일은 일상생활화되어 있다.

'오보'는 몽골의 나그네에게 길을 안내하는 도표가 될 뿐만 아니라 대자연속에 있는 만신(萬神)을 모아 해악에서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진 3. 오보
(민간신앙의 대상이자 길 안내의 표지이다)

‘오보’ 앞을 지날때 반드시 말이나 차에서 내려 돌을 던지면서 주위를 오른쪽으로 돈다. 오보의 크기는 직경 1미터에서 10여 미터가 넘는 것이 있다. 장소는 사방을 둘러보기가 좋은 작은 언덕을 택한다. 대규모의 오보는 그 주변에 작은 오보 12개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오보는 몽고·만주·한국 민족의 거주지에 널리 분포하며, 2000년전에 흉노들도 이를 세웠다고 한다. 이는 몽골 최고의 종교적 전통의 하나이며, 몽고인들은 여기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신이 유숙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메르겐·단제’는 오보란 여러 신과 용 및 여덟 계급의 대지중의 물의 주인이 사는 곳으로 사람들을 지키는 수호신인요 사람들의 피난처라고 했다. 불교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자연의 만상을 숭배하여 온 몽고인들이 그 중에서도 하늘은 아버지, 땅은 어머니로서 최대의 존경을 아끼지 않았는데, 하늘에는 99, 땅에는 77의 여러 신이 있다고 믿어왔던 것이다. 18세기의 고승, ‘메르겐·단제’는 바로 민간신앙과 불교를 융합하려 시도한 사람이고 이러한 흐름이 몽골을 비롯한 만주·한반도의 민족들에게 면면이 이어져 온 것 같다.

일상생활에서 악귀를 접근치 못하게 하는 행위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름을 짓는데도 적용된다. 예를들면 ‘네루구이(무명)’ 씨, ‘쇼르마스(악마)’ 씨, ‘호모르(말똥)’ 씨가 흔히 쓰이는 이름이다.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옛날, 악귀의 관심에서 멀리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개똥’이, ‘쇠똥’이가 별명으로 애칭된 바 있었다.

4. 맺는 말

몽고의 자연지리는 넓은 국토와 교통망의 낙후로 인하여 상세한 조사가 쉽지 않다. 그리고 몽고

의 역사·문화지리 분야와 자원·경제지리 분야는 기존의 연구 축적이 적지 않은 것 같다. 다만 러시아어로 기록된 연구물이 많은 관계로 접근에 어려움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고를 비롯한 바이칼 주변의 지리는 그것이 한반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점차 크게 요구되고 있으며, 실제로 연구의 황무지나 다름없다. 특히 지형학 연구에서는 우리의 ‘산록완사면’이 고기후의 건조성과 연관된다는 점을 몽고의 건조지형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을 것이고, 문화·역사지리학 연구에서는 문화의 확산 경로와 그 영향을 밝히는데 몽고는 더없는 현장이 될 것이며, 경제지리학에서는 유목의 실상과 그 해체 과정을 연구하는데에 좋은 현장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장차 이곳을 답사하는 지리학도들은 지금, 역사 및 고고학 분야에서 발굴조사가 진행중인 것처럼 한·몽 협력을 통한 장기간의 세분야별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文 獻

- 박원길, 1996, 몽골의 문화와 자연지리, 두솔.
 한국몽골학회, 1996, 학회지 몽골학 제4호.
 Balhaajav, T.S., 1993, My Mongolia, Ulanbator.
 掘郎 譯, 1974, Shamanism(エリア-デ 原著), 冬樹社.
 飯塚浩二, 1972, 滿蒙紀行, 筑摩書店.
 原山煙, 1995, モンゴルの神話・傳説, 東方書店.
 伊藤幸一, 1975, モンゴル經濟史序説, 風媒社.
 伊藤幸一, 1985, モンゴル經濟史を考える, 法律文化社.
 田中克彦, 1992, モンゴル民族と自由, 岩波書店.
 小長谷有紀, 1992, モンゴル風物誌, 東方書店.